

미얀마 갈등, 국제사회 “불교 자성” 촉구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이 40여년 만에 찾아온 미얀마 민주화의 봄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사회에서 미얀마의 이번 종교 간 유혈 충돌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주목되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종교 간 유혈 충돌에 대해 미온한 태도를 보여 국제 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4월 8일(현지 시각) 미얀마 유혈충돌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고 “미얀마 사회에서 일고 있는 불교민족주의가 위협 수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하고, “그 중심에 불교계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퇴색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CNN은 23일자 보도에서 “최근 전개된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해 ‘평화를 위한 폭력’이라는 미얀마 불교계의 설명은 ‘정치적 수사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종족 갈등이 미얀마가 민주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갈등으로 미얀마 민주화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ABC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 “미얀마 사태는 매우 슬픈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님은 용서와 관용에 대해 가르치셨다”며 “따옴 한 구절에서 분노와 살의를 느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불제자”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승려를 감시하는 미얀마 군인. 불교·무슬림의 유혈 충돌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웅 산 수치의 ‘미온한 반응’ ... 국제사회 ‘우려’ 불러 로이터 통신, “종교·종족 갈등, 민주화 발목 잡을 수도”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22일 미얀마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라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미얀마 당국 이 사태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수치 여사가 지난 17일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마련된 도쿄 대학 특별 강연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세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치 여사는 도쿄

대학 특별 강연에서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민족 분쟁이 있어 왔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 수는 없다”며 “먼저 법치가 바로 서야, 종교·민족 간의 폭력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마법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수치 여사는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 미얀마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큰 존경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종교, 종족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화 개혁을 계속할지, 지난해 4월

정계에 진출한 수치 여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 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과잉진압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국제 사회의 실망을 초래했다. 이번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마이 크틸라 유혈 충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지난 23일 ‘수치 여사의 무슬림 도덕적 딜레마(Suu Kyi’s Muslim moral dilemma)’라는 주제의 보도를 통해 “수치는 미얀마 마이 크틸라에서 불교계가 일으킨 유혈 사태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는 데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에 대한 수치의 결단, 앞으로의 정치적 여정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얀마에 잠재해 있던 종교 갈등이 표면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3월 22일 미얀마 중부 도시 마이 크틸라에서 불교도 주민과 무슬림 주민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사건은 3월 20일 무슬림 금은방 주인과 불교도 손님 간의 말싸움에서 발단이 됐다. 이 싸움으로 스님이 죽고, 이에 불교도들이 무슬림 주거지로 쳐들어와 방화한 데서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이 시작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공무원 시험에서 빨리어 사라진다

젊은 층 빨리어 ‘외면’ 자명 ... 인도 불교 쇠퇴 야기할 수도

인도 정부가 국가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빨리어를 제외시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인도 불교학자들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디스트 채널(Buddhist Channel)은 16일 란카웹(Lankaweb)의 보도를 인용, “그동안 빨리어의 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인 공무원의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인도 정부의 결정은 자칫 인도에서 불교의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관공문화부는 지난 2006년 ‘고대 언어’의 자격을 “1500~2000년 전 기록된 문헌상 언어로 당시의 일상어 유산의 가치가 크고, 동시대 사어(死語)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고,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과목의 고대어 분야에서 ‘빨리

어’를 채택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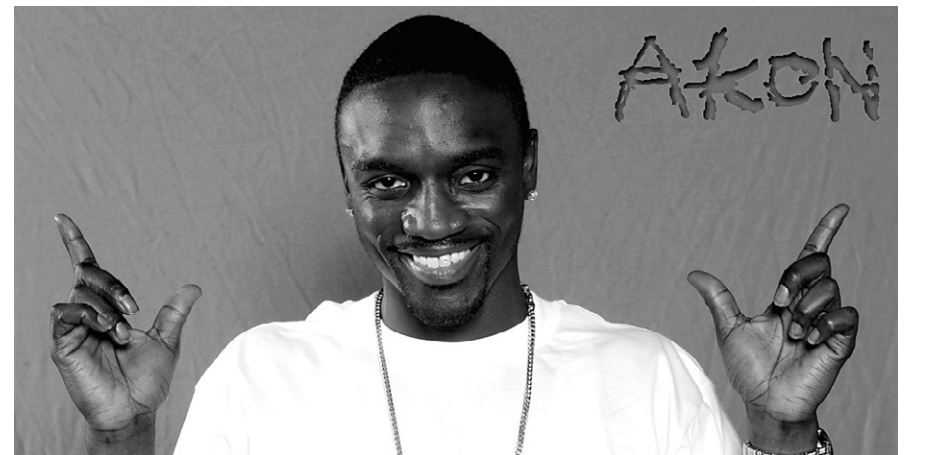
한편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교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빨리어와 그 문헌이야말로 인도 관공문화부의 고대어 분류 기준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빨리어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삼장(Tripitaka)의 언어이고, 삼장은 불교문화의 보고라는 것이다.

부디스트 채널은 “인도 정부의 결정이 동시대에서 불교 연구·포교 분야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불교학계의 반응을 전하고, “우리는 인도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고 비논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인도 정부, 특히 관료주의자들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학계의 입장을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처님 좋아 팔에 문신했을 뿐인데...”

스리랑카, 부처님 이미지 훼손 금지... 입국 금지



인구 70%가 상좌부 불교를 따르는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 이미지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 가수 아콘(Akon)은 불상 주위에서 반라의 여인이 춤추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해 입국을 취소당했다.

팔에 부처님 두상을 문신한 영국 관광객의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스리랑카 지역신문 란카데파 싱하레세(Lankadeepa Sinhalese)는 최근 “영국인 안토니 랫클리프(42)가 부처님의 품위를 손상하는 문신으로 스리랑카 입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광객은 문신에 대한 이민국 질문에 무례하게 반응하고 불교를 폄하했다고 전해진다.

콜롬보 반다라나이케(Bandaranaik) 국제공항 이민당국은 “무례한 행동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신변 안전을 위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했다.

BBC는 “런던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인 이 스리랑카를 경유하고 있어 현지 주민에게 무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려해 동안 불교를 믿어왔고 문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 부처님을 문신으로 새

겼다.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문신한 것은 아니다”고 관광객의 말을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상좌부 불교 신도국가이며 부처님 이미지 훼손을 금지시 해외국인들에게도 현지 벌레와 종교적 분위기를 따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 스리랑카는 2012년 8월 불상을 키스하는 포즈를 취한 프랑스인에게 6개월 강제노동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0년에는 미국 R&B 가수 아콘이 불상 주위에서 반라의 여인들이 춤추는 뮤직비디오 발표 이후 스리랑카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 BBC는 “한해 10만 명의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며 전체 관광객의 10%를 영국인이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고종 해외교구, 정기수련대회 열어

종무원장에 미국인 해도 스님

태고종 북미·유럽교구(회장 중매)는 교구본사가 소재한 미시간 머디워터선원(Muddy Water Zen Center)에서 4월 12~14일 ‘미동부지역 정기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수련대회에는 미북동부 및 캐나다 태고종도 및 태고종 종합대학인 IBS USA 불교대학 학생 등 2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중매 스님(로울라 메리마운트)의 참선지도와 발우공양, 법문 등으로 이루어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매 스님은 올 초 2007년에 설립된 태고종 해외교구를 미국인 제자 해도 스님(Gary Schwocho)에 종무원장직을 위임해 한국불교 사상 최초의 외국인 교구 책임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수련대회를 개최한 미시간 주에는 교구사무실이 소재한 머디워터선원

(Muddy Water Zen Center) 뿐 아니라 그랜트래피드선원(Grand Rapids Zen Center, 주지 덕운), 라이징로터선원(Rising Lotus Zen Center, 주지 법해), 보디마인드선원(Bodhi Mind Zen Center, 법안전 법사) 등 4개의 사찰이 있다. 이곳에

해외교구 800여 미국인신도 등록

5월 31일 중·서부 수련대회 예정

만 약 800여 명의 미국인 신도들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종무원장 해도 스님은 전직 장로교 목사이자 축의과 박사로서 2001년 삼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2007년 중매 스님을 은사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해 태고종 소속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는 2013년 현재



4월 12~14일 미시간 머디워터선원에서 열린 ‘미동부지역 정기수련대회’에 참가한 태고종 해외교구 사부대중.

22개 사찰과 47명의 승려 및 전법사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교구 종무원(미시간)과 지방총회(캐나다) 그리고 호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구의 지회는 미국동부·북부·남부·중부·서부·캐나다·유럽 등 7개소에 개설돼 있다.

회주 중매 스님은 “해외교구 설립 이래 이번 수련회에 가장 많은 종도들이 동참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함에 따라 북미지역의 태고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태고종 북미·유럽교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보광사에서 중·서부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사진제공=미주한국불교

법문집, 주제가 있는 에세이집, 구도기, 자연치유 경험담, 여행기 등

현대불교가 진리의 법문을 담은 소중한 그릇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산하대지 온 천지가, 심지어는 한 송이 풀꽃마저도 법을 노래하지 않은 적이 한시도 없건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 뜬 장님마냥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바세계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으니, 자기 등불을 이미 밝힌 불자는 깨어 있음의 기쁨으로 종을 치고 북을 쳐서 세상을 향해 돌이키라는 외침을 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곧바로 그것이 허물이 됨을 알면서도 말과 글을 실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원만구족해 있는 우리안의 佛性を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에서는 우리 안의 불성을 깨우고 자극하는 법문집이나 에세이, 구도기 등, 모든 형태의 佛書를 기획하고 게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출판의 대외여건상 초기에는 저자가 일정 부수를 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지만, 광고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독자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 예는 소정의 인세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단행본 출판은 현대불교와 상의 하여 주십시오.



(문의 : 02-2004-8213, 010-7755-2261) 현대불교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반사되며, '제목 양초 보시', '받으실 사찰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후 현대불교신문사 또는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 현재 남은 수량 228셀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0233 /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6